

성명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서울 개최를 적극 지지합니다.

오는 3월 26~27일 양일간 53개국 정상, 4대 국제기구(UN, IAEA, EU, Interpol) 수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대한민국이 경제개발뿐만 아니라 안보분야에 있어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러한 국제회의를 오로지 편협한 이해관계와 잘못된 논리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우리의 국격을 훼손시키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한국원자력학회를 비롯한 원자력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금번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첫째, 핵안보의 실천적 비전과 이행조치를 제시함으로써 핵과 방사능 테러로부터 자유로운 세계 평화 실현에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핵무기 없는 세계” 구현을 목표로, 본 회의에 참석하는 오바마 美 대통령, 후진타오 中 국가주석,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등 세계정상들의 핵테러 근절에 대한 강력한 서약은 북핵문제해결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본 회의는 원자력 안전과 안보 연계 강화 방안의 모색과 함께 日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부각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써 보다 안전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정상회의인 본 회의의 개최를 통해 국가브랜드 및 대외 신인도 향상은 물론, 우리나라가 글로벌리더로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안보분야 세계 최대의 정상회의로 국제사회에 우리의 위상과 국격을 한층 더 제고시킬 계기가 될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한국원자력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대한방사선방어학회, 한국방사선산업학회 회원 일동은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일본 원전 사고 이후에도 국제사회는 원자력 안전을 강조하면서 에너지수요와 기후변화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발전을 꾸준히 확대해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가 에너지안보 및 CO₂ 감축에 크게 기여하는 원자력발전이 더욱 더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우리 원자력 종사자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2년 2월 22일

한국원자력학회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 대한방사선방어학회 · 한국방사선산업학회